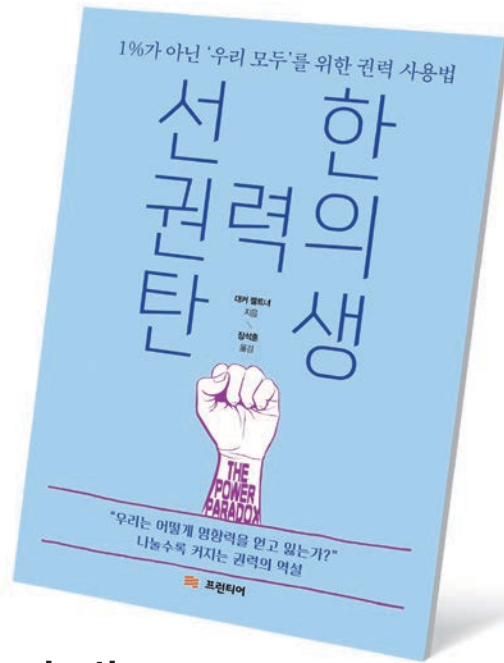


책으로 사회를 읽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권력 「선한 권력의 탄생」



글. 이하민 북칼럼니스트 / 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상상프로젝트 기자

‘권력’(權力). 단어에서 풍기는 뉘앙스만으로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말이다. 왜 그럴까? 인간이 공동체 만들고 사회를 형성한 이래 권력은 줄곧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며,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마음대로 빼앗기도 했다. 이 같은 경험으로 인해 그동안 권력의 정의는 ‘상대를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으로 굳어졌다. 내가 그것을 차지하지 않는 이상, 그리 유쾌하지 않은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면도 있다. 그래서 권력을 흔히 ‘필요악’이라 부른다.

필요악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것. 바로 이러한 권력의 성질 때문에 권력을 잡은 자의 말로가 처참했던 역사를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다. 오죽하면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19세기 영국 정치학자 액튼 경이 한 말이 명언이 되었을까. 민주주의의 삼권분립도 결국 권력이 기본적으로 악한 성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제도다.

권력은 정말 악할 수밖에 없을까? 어딘가에 선한 권력이 있다면 권력을 잡은 이도, 잡지 못한 이도 모두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놀랍게도 선한 권력은 유토피아에나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 있으며, 지금도 누군가는 매일 선한 권력을 행사하며 살고 있다. 선한 권력은 다름 아닌 상대방을 이롭고 행복하게 하는 영향력이다. 즉 배려와 이타주의가 이 시대 가장 강력한 권력이며, 동시에 권력을 오래 유지하도록 해주는 힘이다. 영국의 심리학 교수 대커 켈트너가 20년 동안 권력을 연구한 끝에 이를 증명해냈다. 이 책은 그가 연구를 통해 밝혀낸 권력의 핵심적인 원리와 현대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권력, ‘선한 권력’의 정의를 담고 있다.

마키아벨리의 ‘악한 권력’ vs 켈트너 교수의 ‘선한 권력’



니콜로 마키아벨리와 군주론 / 출처 : 위키피디아

책 서두에 따르면, 오랜 역사 동안 인류가 권력으로 인해 고통받은 이유는 그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안타까운 일의 시작이 16세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권력의 핵심은 무소불위 전제군주가 휘두르는 강압, 폭력, 기만과 권모술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힘과 명예와 부를 가진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매우 희소한 자원이었다. 이후 <군주론>은 수많은 사람이 읽었고, 우리에게 권력은 강제력과 기만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힘으로서 받아들여 졌다.



대커 켈트너 교수 / 출처 : 위키피디아

그러나 마키아벨리의 낡은 권력 개념은 오늘날 더 유지되기 어렵다. 현대 사회에서 강한 무력과 지배력이 없어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 사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 참정권 채택, 언론 자유 운동, 인종차별 정책 폐지 등이다. 더군다나 마키아벨리의 권력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 이외에 부모와 자식, 연인과 부부, 선생과 학생 등 모든 사회적 관계에 적용되는 권력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 강압과 기만으로 점철된 권력 역학이 부모와 자식 간에 적용된다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권력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타인의 삶을 고양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힘’, 즉 권력은 공동체의 선에 기여하는 것이며 마키아벨리의 악한 권력과 대비되는 ‘선한 권력’이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이해할 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권력 역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마키아벨리의 권력 개념과 대비 시켜 자신만의 권력을 정의한 저자의 관점은 흥미롭다. 다만 마키아벨리가 정말 무소불위의 폭압적 권력을 주장했는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지금까지도 학자들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그는 혼란하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할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을 말하는 한편, 자유로운 민중이 조화로운 공동체를 추구하는 일종의 공화주의도 주

장했기 때문이다. 그가 저술한 <군주론>에서도 군주가 신민에게 사랑보다 두려움을 받는 게 낫지만, 그렇다고 미움과 경멸은 받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즉, 강압과 관용 사이에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저자가 마키아벨리를 단지 독재 군주 권력을 옹호한 낡은 개념의 주창자로 묘사한 것은 조금 아쉽다. 그러나 히틀러, 무솔리니 등 현대의 독재자들이 <군주론>을 흠모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저자의 주장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자들도 이런 측면에서 저자의 생각을 이해한다면 책을 읽어 가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선한 권력 사용법

저자가 정의한 권력은 더 이상 부와 높은 계급을 지닌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권력은 사회 연결망 전반에 존재하며, 따라서 인간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누구라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행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뿐이다. 우리는 타인에게 이로운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실의에 빠진 친구를 위로해 용기를 북돋워 줬다면 나는 그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내 위로 덕분에 친구가 다시 재기에 성공한다면,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준 셈이 된다.

21세기 ‘선한 권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16세기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권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선 공통점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이는 권력이 가진 기본 성질이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힘과 무력과 재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자가 말한 선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별도의 지배력은 필요치 않다. 타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권력이다.



공동체의 행복을 높여주는 사람들

따라서 이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기만 하면 공동체가 먼저 나서서 권력을 부여한다. 저자는 여기서 ‘최대 선’의 개념을 등장시킨다. 이는 공리주의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많은 사람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줄 때, 최대 선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는 최대 선을 위해 노력하는 이에게 영향력을 부여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다. 좋은 노래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가수,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 직장인, 기름 유출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달려 나간 자원봉사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을 던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부여하는가? 저자는 ‘평판’이라고 답한다. 평판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격을 두고 사회 공동체가 내리는 판단이다. 여기서 평판을 단순히 타인에 대한 이미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평판은 이미지와 달리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한 번 형성되면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평판은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좋은 평판을 얻게 되면 우리는 지속해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얻게 된다.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이 나 있으면, 사람들은 나에게 사회자원을 기꺼이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와 친해지려고 할 것이며, 나와 일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쌓은 인적 및 물질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

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좋은 평판을 유지할 때 존경과 명예라는 최대의 인정을 받게 된다. 결국, 저자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평판은 곧 권력이자 영향력의 원천이다.

지금까지 말한 과정을 모두 실천했다면 우리는 선한 권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권력이라도 권력은 권력이다. 인간은 무언가 시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을 때 희열과 흥분을 느낀다. 그것이 이타적인 목적에 기반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저자는 이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타인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는 권력 남용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선한 권력’이 마키아벨리의 ‘악한 권력’으로 변질하는 순간이다. 우리가 권력 남용을 저지르게 되면 공동체는 우리에게 부여한 권력을 다시 박탈한다. 저자는 이를 권력 역설이라고 표현했다.

권력 역설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무력감에 빠트린다. 무력감은 스트레스와 불신, 충동을 낳고 우울증을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권력을 쥐었을 때, 이를 통제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다. 결론에서 저자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한다. 자신을 낮추고 냉정하게 바라보라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선하고 정의롭다고 확신하는 순간,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생각보다는 타인과 공동체가 내리는 판단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권력 남용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로써 선한 권력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모두가 권력을 행사하는 평등 사회

저자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직장을 옮기면서 가난한 이웃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저자는 그곳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무력감을 직접 목격했다. 이는 그가 학자로서 20년의 세월 동안 권력을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저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권력을 갖게 되는 세상일 것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피부가 까맣든 하얗든, 누구나 이타적인 마음으로 남을 돕기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런 노력을 행할 때 불평등과 불의가 사라지고 평등한 세상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난하고 힘없어서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저자가 말하는 선한 권력이 다스리는 사회다.

다만,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한 가지 빠트린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대 다수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그런데 현실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타적인 목적으로 선택한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는 그 행동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굳이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논의를 끌고 오지 않아도,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집단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이런 딜레마 상황에 봉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지 조언이 없던 점은 조금 아쉽다.

그럼에도 이 책은 우리가 권력에 관해 갖고 있던 오랜 관념에서 해방시켜 준다. 책을 읽고 나면 권력은 인간을 굴복시키고 종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삶의 원동력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를 포함해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선한 권력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게 되기를 바란다. 📖